

## 제4회 우수편집도서상 심사평

- 김이구(문학평론가)

### 1

제4회 '우수편집도서상'에 접수된 책은 총 68개사 109종(성인 79종, 청소년 및 아동 30종)으로 우수편집도서상에 대한 출판계와 편집자의 관심이 꾸준함을 보여주었다. 예심에서는 분야를 나누어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실용 분야의 책이 적었던 것이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 편집 경력이 상당한 다섯 분의 예심위원이 수고한 끝에 본심에 넘어온 책은 역사 분야 2종, 인문 분야 2종, 실용 분야 1종, 어린이 청소년 분야 1종으로 총 6종이었다.

본심 대상으로 6종은 많은 종수는 아니지만 여러 권짜리 책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권수가 10권에 달했다. 분량도 상당한데다가 분야 또한 다양한 터라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본심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눈으로 찬찬히 보고 이를 종합하면 바람직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믿고 한 달여 기간 동안 10권의 책을 살펴보았다.

11월 9일 한자리에 모인 심사위원들은 우선 심사 원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가독성, 심미성, 그리고 편집 의도와 그 결과를 주요 기준으로 삼자는 데에 동의하였고, 기획 자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번역서의 경우 편집자의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시리즈 도서인 경우 시리즈 기획(편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렇지만 어떤 사안이든 일반적으로 적용될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난점이 있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판단해 보고 이전의 심사에서 참고할 점이 있으면 참조하기로 하였다. 또 이전의 수상 도서까지 염두에 둘 때 결과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수상작이 나올 수 있다면 모양새가 좋겠지만 특정 분야에 가점을 줄 수는 없다는 것, 여러 출판사에서 골고루 수상작이 나온다면 역시 모양이 나겠지만 이전에 수상작을 낸 적이 있는 출판사인지는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였다.

### 2

네 권으로 나온 '우리 마을 자연 관찰' 시리즈(양상용 글 그림, 보리)는 '봄' '겨울'편 두 권이 본심에 올라왔는데, 네 권 모두를 검토하였다. 시골 마을 구석구석을 '연두'와 '아빠'가 나들이하며 관찰한 동식물에 대한 정보와 자연의 풍경이 정감 있는 이야기와 그림에 잘 담겨 있는 책이다. 보리 출판사의 책에서 종종 느낄 수 있는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이 이 시리즈에서도 장점으로 살아 있고, 아이가 그린 그림을 각 장 끝에 배치한 것, 본문의 동식물 그림 등 정보 그림과 그 그림을 활용한 색인을 섬세하게 배치한 것 등도 편집자의 의지와 노고를 살필 수 있는 지점이었다. 그렇지만 사계절 생태를 다룬 기존의 책과 뚜렷한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고, '봄'편이 봄의 생동감을 잘 살리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x.

『중세 I』 『중세 II』(움베르토 에코 기획, 김효정 외 옮김, 시공사)는 움베르토 에코가 기획하고 다수의 학자가 집필한 책으로 이탈리아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전체 네 권 중 두 권이 먼저 나왔는데, 이 두 권만 보아도 전체 2,000페이지에 가까운 엄청난 대작이다. 우선 이런 대작을 내겠다고 나서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친절

한 연표, 방주 형식의 소목차, 믿을 만한 고유명사 표기, 권말의 도판과 지도 등 함부로 생략하거나 축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칭찬받을 만한 여러 요소들(예심 평)을 갖추는 등 공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인명과 저술명 등에 꼼꼼히 원어를 챙겨 병기하되 되도록 부담스럽지 않게 신경을 썼고, 방대한 분량에도 표지에서부터 본문 교열 교정, 부록에 이르기까지 흐트러진 부분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번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글은 문장이 딱딱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예코의 자상한 '전체 서문'이 있긴 하지만 한국 독자에게 이 책의 성격과 읽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추천사라든가 역자의 말 같은 장치를 두지 않은 점 등은 아쉽게 느껴졌다. '일러두기'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찾아보기'와 부록으로 실은 도판, 지도, 연표도 원서의 것을 옮긴 듯한데, '찾아보기'에서 다수 인명이 빠져 있는 것도 지적되었다.

『잔혹함에 대하여—악에 대한 성찰』(애덤 모턴 지음, 변진경 옮김, 돌베개)은 표지부터가 금방 눈에 띄는 책이 아니다. 그러나 디자이너인 심사위원은 차례를 앞 표지에 노출하고 '악'이란 글자들을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게 처리한 디자인 의도가 책의 내용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되게 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러두기'에 밝혀 놓았듯이, 이 책에는 원서에는 없으나 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다수 실었고 장 제목과 소제목도 일부 수정하여 실었다. 이는 물론 한국 독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편집자가 개입한 것인데, 자칫하면 과도한 개입이나 왜곡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독자들에게 책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서 잘 구현된 것으로 다가왔다. "활자의 크기 및 종류, 글줄과 여백의 사용법, 들여쓰기와 면주의 사용법, 병기하거나 강조하는 부분 등의 변별법, 사진과 캡션, 옮긴이 주의 배치 방법 등을 가독성을 고려하고도 안정적이면서도 심심하지 않게 적절하게 발휘하여 판면을 짜임새 있게 설계"했고 "물성에서 미니멀한 품격이 돋보인"다는 평가(예심 평)에도 대체로 동의할 수 있었다. 가독성에 대해서는 잘 읽히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철학사』(전호근 지음, 메멘토)는 저자의 강의를 녹취한 것을 토대로 해서 원호부터 장일순까지 30여 명의 철학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술해간 철학사 책이다. 입말체를 잘 살려 정리한데다 동서양을 넘나들고 문학과 역사를 오가는 저자의 박람회감이 감탄스러울 정도여서 철학서임에도 흥미롭게 잘 읽힌다. 표지 디자인에서도 그동안 나온 철학서들의 구태의연함을 깨고 태극의 색상과 변화를 준 한글 서체의 조화를 시도해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는 이미지의 산뜻함을 이뤄냈다. 한문 원문 배치와 인명, 서명, 기타로 나눈 색인에서는 세심한 손길이 느껴진다. 내용 전개에서 결가지로 흘러 산만해진 대목들이 보이고, 인용문에서도 별행일 때는 들여쓰기를 하는 게 적절했을 것 같다.

『참 한옥 집 짓기』(김도수 씀, 보리)는 손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책으로 호감이 간다.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생동감 넘치는 사진들과 일러스트, 이해를 돕는 적절한 캡션 등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한옥 집 짓기의 이해를 돕"고, "생소한 한옥 집 짓기 용어들을 편집상 구분하고(볼드 처리) 본문과 함께 가독성 있게 배치한" 점(예심 평) 등 집 짓기의 전문성이 독자에게 어렵지 않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힘쓴 책이다. 그런데 큰 판형에 사진을 시원하게 넣어 집 짓기 과정 중심으로 구성했다면 좋았겠다,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으나 여전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적극적으로 한옥 짓기에 뜻을 둔 독자층에게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색인에서 페이지 정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다.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김호동 지음, 사계절)는 저자의 오랜 연구와 8년여의 집필 과정을 거쳐 나온 역작인데, 무엇보다도 편집자가 긴밀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성격의 책이다. 펼치면마다 2단으로 짜넣은

본문 텍스트와 입체적으로 그려진 지도, 다양한 종류의 자료 사진, 핵심 내용을 요약한 연표 등의 편집 요소를 빈틈없이 정리하고 아귀를 맞춰 내는 데는 고도의 집중력과 집요함이 필요했을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역사서에 공간을 최대한 살려내고 지도책을 읽는 책으로 만든 기획과 편집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10여년 전 출간된 시리즈의 첫 책과 같은 스타일의 표지 디자인 등으로 인해 신간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것, 색인에서 누락된 지명들이 보인다는 것 등은 아쉬운 지점이었다.

이상의 후보 도서들은 대개 2, 3년여 오랜 기간의 편집 작업을 거쳐 나온 책이고 모두 안정적인 편집 상태를 보여주는 역작이어서 심사위원들은 어떤 책도 떨구기가 쉽지 않았다. 편집자들의 열정과 노고가 눈에 선하게 밝혀왔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압축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수상작으로 고른 책은 『한국철학사』와 『잔혹함에 대하여』였다. 단지 논의를 해갈수록 수상작의 장점이 더 두드러져 보였던 때문이다.

출판에서 편집의 중요성을 인식해 편집자와 출판사를 격려하고 독자에게도 이를 환기하는 백봉제기념출판문화재단 후원의 '우수편집도서상'이 앞으로 좀 더 많은 편집자들에게 수여되고 상금도 확대되기를 소망한다.

### 3

끝으로 책의 구성 요소인 색인 편집에 대한 소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전의 심사평에서도 교정 교열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편집 작업에 대해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내용들도 참조해주길 바라며, 색인 작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적시하여 편집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해 실을 때에는 정확한 기준 설정과 철저한 정리가 필수적이다. 번역서에 원서의 색인을 옮기는 경우, 저자가 작성한 색인을 수록하는 경우, 편집자가 직접 색인 작성을 주도하는 경우 등 어떤 조건이든 편집자는 철저하게 색인 사항을 점검해서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교정 교열 작업도 충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그동안 예심을 거쳐 '우수편집도서상' 본심에 올라온 책들에도 색인에서 누락이나 오류, 정리 미흡이 꽤 눈에 띄었는데 이번 심사 대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편집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작성 방식, 일정 등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막바지에 허겁지겁 쫓기면서 작업해 부실한 상태를 바로잡지 못하기 십상이다.

『중세 I』에서 본문 518면에 나오는 중국 인명 조훤지는 색인 905면에 나오나 519면의 하승천, 조충지, 유작과 520면의 이시진, 청허자 등은 색인 항목에 없다. 색인에서 조훤지가 나오는 면수가 518, 519로 되어 있으나 519면에는 조훤지란 인명이 없다. 이 밖에도 중국 인명이 적지 않게 등장하지만 왜 조훤지만 유일하게 색인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까닭을 알 수 없다. 서양 인명도 566면의 두오다, 580면의 조반니, 608면의 마크렘볼리타, 타티우스 등등 많은 이름이 색인에 누락되어 있다. 그 까닭이 무언지 알 수 없다. 『중세 II』의 색인도 비슷한 사정이다.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에서는 본문의 지도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색인 사항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지명들은 누락되어 있다. 131면 지도에 있는 여러 지명이 색인 항목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동승이란 지명은 색인 항목에 없다. 색인 264면에서 지명 중도가 나오는 본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본문 123, 129, 131면에도 중도라는 지명이 나오지만 색인에는 그 페이지들이 누락되어 있다. 색인에 첩춘담바 쿠툽투로 나오는 인명은 본문 페이지로 가 확인하니 여러 곳에 첩춘담바 후툽투로 다르게 되어 있다. 많은 지명이 누락되고 페이

지 기재 누락도 눈에 띄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다.

『참 한옥 집 짓기』에서는 색인의 페이지 정리가 덜 되어 있다. 색인 256면을 보면 ‘서까래’ 용어가 나오는 페이지가 “152, 153, 154, 155, 156, 157, 159, 160, 161, 162, 163, 164”로 나열되어 있는데, ‘152~157, 159~164’와 같이 정리해야 한다. 같은 면의 ‘상도리’ 용어에는 페이지 숫자 117이 두 번 나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정리가 미흡한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

『한국철학사』에서는 서명 색인에서 본문 99면의 「외척전」, 「추풍사」, 608면 등의 『상서』, 『고문상서』 등 상당수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것, 『높은이』의 위치가 ‘ㄷ’ 항목에 잘못 배치된 것 등이 눈에 띈다. 인명 색인에도 칸트는 있으나 러셀은 없는 등 누락 항목들이 보인다.

짧은 기간 점검해본 바로도 위와 같이 색인 작성과 정리, 확인 작업의 부실함이 발견되었다. 색인은 책을 오래 두고 읽을수록 더욱 의미가 있는 책의 구성 요소다. 이미 그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 독자는 자신이 찾아보고자 하는 대목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가 되기도 하고, 도서관 등에서 자료를 찾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관심 항목이 등장하는 빈도 등을 우선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색인이 누락과 정리 미흡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면 독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색인의 효용도 중지된다. 힘들여 작업한 색인이 제 기능을 잃지 않도록 편집 과정의 마지막 단계까지 철저함을 유지하여야겠다.

-심사위원 김이구 · 김지선 · 한필훈